

[성금요일 주님수난예식]

수 난 복 음

(해설자)

요한 18, 1 - 19,42



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기입니다.



(해설자)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.



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.



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,



그분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.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



함께,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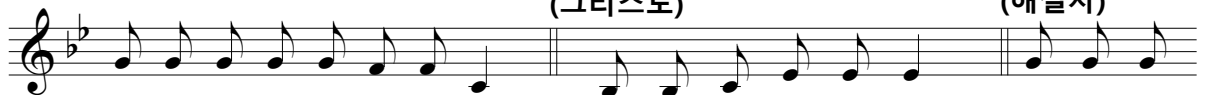
그리로 갔다.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.



예수님께서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

(그리스도)

(해설자)



그들에게 물으셨다. ["누구를 찾느냐?"] 그들이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대답하였다. ["나자렛 사람 예수요."]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 ["나 - 다."]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.

예수님께서 "나 - 다"하실 때,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. ["누구를 찾느냐?"] 그들이

(다른사람) (해설자)
 대답하였다. ["나자렛 사람 예수요."] 예수님께서 말씀

(그리스도)
 하셨다. ["나다. 하지 않았느냐?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

(해설자)
 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."] 이는 "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

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 습니다."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

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.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

고 있던 칼을 뽑아,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.

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

(그리스도)



이 르 션 다. ["그 칼 을 칼 집 에 꽃 아 라. 아 버 지 께 서



나 에 게 주 신 이 잔 을 내 가 마 셔 야 하 지 않 겠 느 냐?"]

(해설자)



군 대 와 그 대 장 과 유 다 인 들 의 성 전 경 비 병 들 은 예 수 님 을 붙 잡 아 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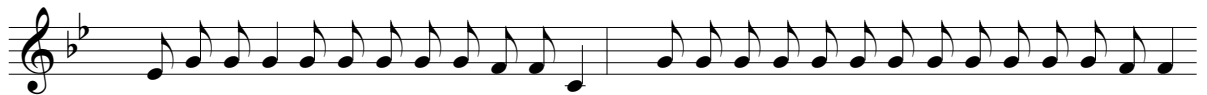
박 하 고, 먼 저 한 나 스 에 게 데 려 갔 다. 한 나 스 는 그 해 의 대 사 제



카 야 파 의 장 인 이 었 다. 카 야 파 는 백 성 을 위 하 여 한 사 람 이 죽 는 것 이



낫 다 고 유 다 인 들 에 게 충 고 한 자 다. 시 몬 베 드 로 와 또 다 른 제



자 하 나 가 예 수 님 을 따 라 갔 다. 그 제 자 는 대 사 제 와 아 는 사 이 여 서,



예 수 님 과 함 께 대 사 제 의 저 택 안 틀 에 들 어 갔 다. 베 드 로 는 대 문 밖 에



서 있 었 는 데, 대 사 제 와 아 는 사 이 인 그 다 른 제 자 가 나 와 서 문 지 기 하



녀 에 게 말 하 여 베 드 로 를 데 리 고 들 어 갔 다. 그 때 에 그 문 지 기 하

(다른사람)



너 가 물 었 다. ["당 신 도 저 사 람 의 제 자 가 운 데 하 나 가 아 닌 가요?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 (해설자)



그 러 자 베 드 로 가 말 하 였 다. ["나 는 아 니 오."] 날 이 추 워 종



들 과 성 전 경 비 병 들 이 솟 불 을 피 워 놓 고 서 서 불 을 쬐 고 있 었 는 데,



베 드 로 도 그 들 과 함 께 서 서 불 을 쬐 었 다. 대 사 제 는 예 수 님 께



그 분 의 제 자 들 과 가 르 침 에 관 하 여 물 었 다. 예 수 님 께 서 그 에 게

(그리스도)



대 답 하 셴 다. ["나 는 세 상 사 람 들 에 게 드 러 내 놓 고 이 야 기 하



였 다. 나 는 언 제 나 모 든 유 다 인 이 모 이 는 회 당 과 성 전 에 서



가 르 쳤 다. 은 밀 히 이 야 기 한 것 은 하 나 도 없 다. 그 런 데 왜 나 에



게 문 느 냐? 내 가 무 슌 말 을 하 였 는 지 들 은 이 들 에 게 물 어 보 아 라.

(해설자)



내 가 말 한 것 을 그 들 이 알 고 있 다."] 예 수 님 께 서 이 렇 게 말 씀 하 시 자,



결에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빵을 치며 말하였다.



["대사제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?"]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.



["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.



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?"]



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.



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.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.



["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니오?"] 베드로는 부인하였다.



["나는 아니오."]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, 베드로가 귀를 잘



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. ["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



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?"]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



하자 곧 닭이 울었다.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



총독관저로 끌고 갔다.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. 그들은 몸이



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, 총독관저안으로



들어가지 않았다.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



물었다. ["무슨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?"] 그들이 빌라



도에게 대답하였다. ["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



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."]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



["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십시오."]



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. ["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."]



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



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.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

(다른사람)



총독관저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. ["당신이 유대인

(해설자)

(그리스도)



들의 임금이오?"]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. ["그것은 네 생각



으로 하는 말이냐?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

(해설자)

(다른사람)



것이냐?"]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. ["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?



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.

(해설자)



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?"]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

(그리스도)



["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.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,



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.

(해설자)



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."] 빌라도가 물었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
["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?"]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

(그리스도)

["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.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

태어났으며,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. 진리에 속한 사람은

(해설자)

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."]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
["진리가 무엇이오?"]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

(다른사람)

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["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

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.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

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. 내가 유대

(해설자)

인들의 임금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오?"]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

(다른사람)

외쳤다. ["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."]

(해설자)



바라빠는 강도였다.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



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.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



얹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, 그분께

(다른사람)



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. ["유대인들의

(해설자) (다른사람)



임금님, 만세!"]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. ["보시오. 내가



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. 내가 저 사람에게서



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."]

(해설자)



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



채 밖으로 나오셨다.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


["자, 이 사람이오."] 그때 예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

(회중)
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. [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 십자가에
 (해설자) (다른사람)
 못 박으시오!"] 빌라도가 말하였다. ["여러분이 데려다가
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.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."
 (해설자) (다른사람)
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. ["우리에게는 율법
 이 있소.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. 자기가 하느
 (해설자)
 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."]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
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.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
 (다른사람) (해설자)
 예수님께 물었다. ["당신은 어디서 왔소?"] 예수님께서서는 아
 무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
 (다른사람)
 ["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?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



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?"]



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 ["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



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. 그러므로 나를



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."]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



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.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쳤다.



["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.



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



는 것이 오."]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



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.



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말로 가빠타라고 한다. 그날은 파스카 축



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시쯤이었다. 빌라도가 유대인

(다른사람)



들에게 말하였다. ["보시오. 여러분의 임금시오."]

(해설자)

(회중)



그러 자유대인들이 외쳤다. ["없애버리시오. 없애버리시오.

(해설자)



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."]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.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["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말이오?"] 수석사제들이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대답하였다. ["우리 임금 - 금은 황제뿐시오."] 그리하여



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



다.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.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



가를 지시고 '해골터'라는 곳으로 나가셨다. 그곳은 히브리 말



로 골고타라고 한다.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



박 았 다. 그 리 고 다 른 두 사 람 도 예 수 님 을 가 운 데 로 하 여



이 쪽 저 쪽 에 하 나 썩 못 박 았 다. 빌 라 도 는 명 패 를 써 서 십 자 가 위



에 달 게 하 였 는 데, 거 기 에 는 '유 다 인 들 의 임 금 나 자 렛 사 람 예 수'



라 고 쓰 여 있 었 다. 예 수 님 께 서 십 자 가 에 못 박 히 신 곳 이 도 성 에



서 가 까 왔 기 때 문 에, 많 은 유 다 인 이 그 명 패 를 읽 게 되 었 다.



그 것 은 히 브 리 말, 라 틴 말, 그 리 스 말 로 쓰 여 있 었 다.



그 래 서 유 다 인 들 의 수 석 사 제 들 이 빌 라 도 에 게 말 하 였 다.



(다른사람)

['유 다 인 들 의 임 금' 이 라 고 쓸 것 이 아 니 라, '나 는 유 다 인 들 의



(해설자)

임 금 이 다.'하 고 저 자 가 말 하 였 다 고 쓰 시 오."] 빌 라 도 가 대 답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하 였 다. ['내 가 한 번 썼 으 면 그 만 이 오."] 군 사 들 은 예 수 님 을



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,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



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.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슬기



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었다.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



하였다. ["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."] (다른사람)



"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(해설자)



제비를 뽑았습니다."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



리된 것이다.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. 예수님의 십자



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,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



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



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, 어머니에게 말씀 하셨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["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"] 이어서 그제자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에게 말씀하셨다. ["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."] 그 때 부터 그제

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. 그 뒤에 이미 모든 일 이 다 이루

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고 말씀하셨다. ["목 마르다."]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

그릇이 놓여 있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

신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꽃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.

예수님께서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["다 이루어졌다."]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.]

(해설자)

그 날 은 준 비 일 이 었 고 이 틀 날 안 식 일 은 큰 축 일 이 었 으 므 로,

유 다 인 들 은 안 식 일 에 시 신 이 십 자 가 에 매 달 려 있 지 않 게 하 려 고,

십 자 가 에 못 박 힌 이 들 의 다 리 를 부 러 뜨 리 고 시 신 을 치 우 게 하 라 고

빌 라 도 에 게 요 청 하 였 다. 그 리 하 여 군 사 들 이 가 서 예 수 님 과

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힌 첫 째 사 람 과 또 다 른 사 람 의 다 리 를 부 러

뜨 렸 다. 예 수 님 께 가 서 는 이 미 숨 지 신 것 을 보 고 다 리 를 부

러 뜨 리 는 대 신, 군 사 하 나 가 창 으 로 그 분 의 옆 구 리 를

찢 렸 다. 그 러 자 곧 피 와 물 이 흘 러 나 왔 다. 이 는 직 접 본 사

람 이 증 언 하 는 것 이 므 로 그 의 증 언 은 참 되 다. 그 리 고 그 는

여 러 분 이 믿 도 록 자 기 가 진 실 을 말 한 다 는 것 을 알 고 있 다.



"그 의 뼈 가 하 나 도 부 러 지 지 않 을 것 이 다." 하 신 성 경 말 씀



이 이 루 어 지 려 고 이 런 일 들 이 일 어 난 것 이 다. 또 다 른 성 경 구



절 은 "그 들 은 자 기 들 이 찌 른 이 를 바 라 볼 것 이 다." 하 고 말 한 다.



그 뒤 에 아 리 마 태 아 출 신 요 셉 이 예 수 님 의 시 신 을 거 두 게 해 달



라 고 빌 라 도 에 게 청 하 였 다. 그 는 예 수 님 의 제 자 였 지 만



유 다 인 들 이 두 려 워 그 사 실 을 숨 기 고 있 었 다. 빌 라 도 가 허 락



하 자 그 가 가 서 그 분 의 시 신 을 거 두 었 다. 언 젠 가 밤 에 예



수 님 을 찾 아 왔 던 니 코 데 모 도 몰 약 과 침 향 을 섞 은 것 을 백 리 트



라 쯤 가 지 고 왔 다. 그 들 은 예 수 님 의 시 신 을 모 셔 다 가



유 다 인 들 의 장 례 관 습 에 따 라, 향 료 와 함 께 아 마 포 로 감 썼 다.



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, 그 정원



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. 그 날은 유



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, 그



들은 예수님을 그 곳에 모셨 - 다.



주님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